

2020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김태형 의원

- 연구단체 대표의원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박정환 의원

- 연구단체 간사
-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화덕 의원

- 운영위원회 위원장
-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박왕규 의원

-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배용식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안대국 의원

- 부의장
-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윤권근 의원

- 의장



홍복조 의원

- 복지문화위원장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I. 연구배경

- ☐ 달서구의 장애인은 약 2만7천5백명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있으며, 전국에서는 서울 강서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장애인 많은 지역에 해당
- ☐ 달서구의회는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난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발표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이 수행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연구결과의 전문성 확보
- ☐ 타 지자체 우수 장애인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달서구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그 중에서도 달서구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삶 영위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II. 연구목적

- ☐ 달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흡한 조례 및 정책을 개선하고, 달서구 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례와 정책을 발굴하여 달서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불어 의원 정책역량을 강화

제2장 연구개요

I. 연구단체 구성

- ☐ 단 체 명: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 ☐ 연구위원: 김태형 의원(대표의원), 박정환 의원(간사), 김화덕 의원, 박왕규 의원
배용식 의원, 안대국 의원, 윤권근 의원, 홍복조 의원

II. 연구 중점 사항

- ☐ 달서구 장애인 정책의 현황 진단
- ☐ 타 지자체 장애인 정책 현황 파악 및 달서구 장애인 정책 비교분석
- ☐ 달서구 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례 발굴 및 정책 개발
- ☐ 전문성 있는 정책연구 수행기관에 함께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

III. 연구활동 기간

- ☐ 2020. 6. 2. ~ 11. 30.(6개월)

IV. 연구범위

- ☐ 장애인 고용 관련한 현 시스템과 사례(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 ☐ 장애인 지원 정책
- ☐ 장애인 관련 조례

제3장 세부 추진 활동 내역

1. 1차 연구활동

- ☐ 일 시: 2020년 7월 1일(수) 11:30 ~ 13:30
- ☐ 장 소: 달서구 본동 길용성
- ☐ 참석자: 흥복조 대표의원 외 연구단체 의원 7명
- ☐ 내 용: 연구용역에 대한 주제 설정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



II. 2차 연구활동

- ☐ 일 시: 2020년 7월 6일(수) 11:00 ~ 11:30
- ☐ 장 소: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장실
- ☐ 참석자: 홍복조 대표의원, 안대국 의원 등 연구단체 의원
- ☐ 내 용: 연구용역 과업이행을 위한 사전 협의



Ⅲ. 3차 연구활동

□ 일 시: 2020년 8월 20일(목) 11:00 ~ 12:00

□ 장 소: 달서구의회 대회의실

□ 참석자: 김태형 대표의원 외 연구단체 의원 7명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 원장 박남수, 정책실장 고훈석

※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 대표의원 변경(홍복조 의원→김태형 의원)

□ 내 용: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달서구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IV. 4차 연구활동

- ☐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11:00 ~ 12:00
- ☐ 장 소: 달서구의회 대회의실
- ☐ 참석자: 김태형 대표의원 외 연구단체 의원 7명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 원장 박남수, 정책실장 고훈석
- ☐ 내 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및 달서구 적용 가능한 정책 모색



V. 5차 연구활동

- ☐ 일 시: 2020년 10월 20일(화) 10:00 ~ 10:30
- ☐ 장 소: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장실
- ☐ 참석자: 홍복조 의원,
고동일 한국경제인 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 사업부장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 원장 박남수, 정책실장 고훈석
- ☐ 내 용: 장애인 기업인에 대한 애로 사항 등 청취



VI. 6차 연구활동

- 일 시: 2020년 10월 21일(수) 13:30 ~ 15:00
- 장 소: 달서구 『담장허무는 엄마들』 사무실
- 참석자: 김태형 대표의원, 홍복조 의원
담장허무는 엄마들 대표 정점순 외 4명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 원장 박남수, 정책실장 고훈석
- 내 용: 장애인 학부모의 애로 사항 등 청취



Ⅶ. 7차 연구활동

- ☐ 일 시: 2020년 11월 4일(수) 16:00 ~ 17:00
- ☐ 장 소: 달서구의회 대회의실
- ☐ 참석자: 김태형 대표의원 외 연구단체 의원 6명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 원장 박남수, 정책실장 고훈석
- ☐ 내 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장애인 관련 조례 제·개정 논의 및 장애인 기업 모델 개발에 대한
가능성 모색



제4장 연구결과

1. 법령 및 정부 정책 검토 결과

- ☐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정비는 잘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인 장애인은 지원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
- ☐ 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서비스를 추진하여야 하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가 있어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 ☐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있음
예) 법 제42조 (생업 지원) 장애인 생업을 위해 관공서 구내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담배소매인 지정, 우표류 판매업의 업종에 우선권 부여
⇒ 현실에 맞는 장애인 적합업종에 대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 필요
- ☐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고용촉진 및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제도적 측면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시책이 상호 보완되는 측면이 있음
-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부처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 이런 다양한 지원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각종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장애인 지원정책과 연관되어 있음

- ☐ 따라서, 법에서 정한 장애인기업활동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장애인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효율적이면서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6월 16일부터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

- ☐ 달서구 관내 장애인기업 종사자 및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자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함

- ☐ '장애인 기업활동지원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며, 센터 내에 사회적경제 부서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II. 정책제안

1. 조례 정비

- ☐ 조례 개정

-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추가보완

- ① 제14조(보호고용)
- ②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 ③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④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 ⑤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

- ①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 ②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 ③ 제8조(구매촉진)

위 조항 내용은 법률에서 강제규정 「~해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는 임의규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제규정인 「~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제정

- 1)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의안발의)
- 2)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2.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조례 제정

☐ 타 자치단체 「장애인지원센터」를 참고로 달서구에도 「장애인지원센터」설치가 필요함

- 센터의 역할: 장애인 종합복지 지원,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 창업보육센터

지역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울진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장애인 기업 육성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¹⁾,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²⁾를 통한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의 가이드를 능동적으로 교육 및 안내기능 강화
- ☐ 장애인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거나 유관기관별 기관 협업을 통한 장애인 경제활동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지원
 - 행정지원체계에서 업무조정 필요
 - 장애인기업 지원 담당 부서와 사회적협동조합 담당 부서 간 업무 협력 체계 구축
 - ☞ 장애인기업 지원부서 내에 사회적협동조합 담당자 선임 등

1)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제11조 (재정지원), 제23조(통합지원체계 구축),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2)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4조(기능), 제9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16조(홍보 등)

《 연구결과 적용사례 》

■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자조모임 「담장허무는 엄마들」과 간담회 중 모임 참석자들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으나 그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있어, 연구단체에서 연구활동 과정 중 발견한 우수사례(서울 성북구 ‘나무와 열매’)를 벤치마킹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함.

중증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협동조합 설립 인가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엄마들의 돌봄 품앗이는 물론 이들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나무와 열매’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 환승주차장 빌딩 7층
- 대표이사: 김경예
- 장애아동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장애아동 돌봄을 위해 설립
- '19년 고용인원 407명 중 취약계층 217명(53.3%)
-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스포츠 체육, 스트레칭 및 관절운동,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기관으로 장애아동 뿐 아니라 비장애 아동들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언론자료】

<브레이크뉴스 2020. 11. 5일자>

사회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장애인 중심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도모

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20/11/05 [17:38] 🔍 본문듣기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달서구의회는 지난 4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달서구 의원 연구단체인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김태형)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C) 달서구의회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태형 안대국 홍보조 김화덕 박정환 박왕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수행 기관인 따뜻한 사회정책 연구원의 박남수 연구원장이 그 동안의 연구 활동 추진 실적 등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 연구단체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시스템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연계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장애인기업을 활성화하고자 이와 같은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본 연구용역은 연구원과 연구단체 의원들이 함께 연구용역 내용을 공유하며 관련 장애인 기업,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 및 토의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여기서 제안된 장애인 기업 모델이 우리 구에서 실제로 구현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대표 의원은 “성공적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달서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 등 후속적인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리 연구단체 의원들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경북일보 2020. 11. 8일자>

뉴스 > 정치

가 - 음 33

대구 달서구의회 “장애인 고용 활성화 우리가 책임진다”

대구 달서구의회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우현 기자 jhwon2019@daegu.com

입력 2020.11.08 12:48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왼쪽부터 대구 달서구의회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4일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김태형·안대국·홍복조·김화덕·박정환·박왕규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수행기관인 따뜻한 사회정책연구원 박남수 연구원장이 그동안의 연구 활동 추진 실적 등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번 용역은 의원 연구단체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시스템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연계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장애인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태형 대표의원은 “성공적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달서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 등 후속적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